

(통일 495)

#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

주와 동행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C. F. Butler, 1898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있으리라 WHERE JESUS IS 'TIS HEAVEN: 8.8.8. REF. (Ps 17:21) J. M. Black, 1998

보통으로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 니  
 2. 주의 열 굴 뱀기 전에 멀리 뵈 던 하늘 나 라  
 3. 높은 산 이 거친 들 이 초막 이 나 궁궐 이 나

슬픔 많은 이 세상 도 천국으로 화하도 다  
 내 맘 속에 이뤄지 니 날로 날로 가깝도 다  
 내 주 예수 모신 곳 이 그 어 디 나 하늘 나 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 하 세 내 모든 죄 사함 받 고

주 예수 와 동행 하 니 그 어 디 나 하늘 나 라

쉬운 기타코드 (capo=1st) A<sup>b</sup>-G D<sup>b</sup>-C E<sup>b</sup>-D

<http://blog.daum.net/dw7055>

## 시니어 순모임(3월)

인도 : 순장  
 대표기도 : 말은이

📍 찬 양 — 찬송가 438장(내 영혼이 은총 입어) — 다같이

📍 대표기도 — 말은이

📍 감사제목 나누기 — 다같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 기도제목 나누기 — 다같이  
 (본인의 기도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니다)

📍 말씀 나누기 — 말은이

📍 합심기도 — 다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 주시고 교회와 가정을 지키소서

📍 광고 — 말은이

📍 주기도문 — 다같이

알려드립니다.

1. 모든 공예배 정상 진행, 순모임을 비롯하여 모든 모임 잠정 취소합니다.
2. 당분간 주일 점심 식사 취소합니다.
3. 한국이나 해외 방문 후 2주간 모임 자제, 온라인 예배하기
4. 성도 간 악수 자제하고 목례로 대신하기

## 하나님을 경외함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로마서 3장 10-12절)

우리 영혼의 질병은 바이러스와 비슷합니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성령이 양심과 진리의 빛을 비출 때 우리 영혼의 현주소가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단이고 하나는 해결입니다. 즉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 ▶ 첫 번째, 진단,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뿐 아니라 온 인류가 죄인이라고 진단합니다. (롬3:10-12)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입을 열 때마다 죄를 짓는다고 진단합니다. (롬3:13-15)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삶 자체가 죄의 오염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영적치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 ▶ 두 번째 회복 :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무너진 모든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8절,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 피하는 것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가정과 직장,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삶의 체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의 삶입니다. 경외감이란 하나님을 안다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할 때 경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계속 반복하는 가르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 ▣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나의 생각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고쳐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 ▣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당장에 고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생명의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5)